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RAMSAR COP10) 주요 협의 사항 (2008.10.30)

오늘 COP10 총회에서는 탄자니아의 Natron 강 유역 습지에 대한 특별발표가 있었으며, 지난 COP 에서 다루어졌던 이슈들과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전략계획, 재정 및 예산 등이 다루어졌다. 오후에 열린 지역 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앞으로 논의의 될 의제들에 대한 각 국의 입장과 시각을 조율하였다. 또한 예산에 대한 문제와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컨택그룹 회의에서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회의

- 특별 발표

탄자니아 Natron 강 유역 습지에 서식하는 홍학에 대한 영화 “붉은 날개(The Crimson Wing)”의 트레일러를 감상하였다. 이어 탄자니아 환경부 장관 Batilda Burian 은 Natron 강 유역 습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람사르 협약과 디즈니 베이저 간의 협력을 위한 Natron 강 트러스트 펀드의 설립을 보고하였다.

- 이전 COP 이슈와 권고사항

월경(境성 람사르 사이트와 관리. 람사르 사무국은 월경성 람사르 사이트 관리를 위한 업무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COP10 Doc38) 이는 지난 COP9에서 당사국들간의 협의 부재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이 문서는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COP10에서는 재개되지 않으며 먼저 현 월경성 습지 관리 경험과 전략 프레임워크 내에서 월경성 람사르 사이트 지정과 관리에 대한 현행 지침의 타당성이 검토될 것이다. 브라질은 이를 지지하였으나 개념 설명 불충분을 이유로 “국제 강 유역 관리(international river basin management)”의 참조문 교체를 요청하였다.

- 사무국 법적 지위

현재 IUCN 산하기구의 형태인 람사르 사무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Anada Tiéga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위탁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선택에 있어 사무국의 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COP 10 Doc.20, 20 Add.1 and 35 and COP 10 DR 5). 이에 따르면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요약되는데 첫째, IUCN 산하의 현행 지위 유지, 둘째, 독립적 기구로의 전환, 셋째, 유엔 체제 편입 등이다. Tiéga 사무총장은 또한 람사르 협약 및 시행의 장기적 차원에서 지나는 함축적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특히 람사르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여 파트너십의 확보가 동 협약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이행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 러시아, 튀니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세번째 안을 지지하였는데, 특히 수리남과 말레이시아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안이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케냐는 람사르 협력이 점차 전지구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엔 산하로 편입하여 동 협약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각 선택안이 당사자에게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충격이 충분히 분석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일본은 사무국의 독립된 지위 획득이나 유엔 산하기구로 편입되는 방안이 재정적으로 25% 가량 증대된 예산부담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모로코는 이람 당사국들을 대표하여 이람어를 람사르의 공식언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신임장 위원회에 이람어 사용자를 참석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호주와 에콰도르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컨택 그룹에서는 사무국의 법적 지위 및 사무국의 국제 업무 원활화에 대한 결정초안이 논의되었다.

- 람사르 전략계획 2009-2014

사무국은 의제 소개에 이어 COP가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로서 전략 계획 초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COP10 Doc.8 and DR1). 식량에 대한 전지구적인 수요 증대를 주시하며 태국은 국가별 습지 정책과 기구들이 농업분야와 함께 공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람사르 사이트로서 과소표시된 습지 목록과 강 어귀, 맹그로브 숲 늪지대 등과 같은 특정습지를 위한 적정 목표의 세부화를 제안했다. 뉴질랜드는 전략 계획의 일부 목표의 경우 주어진 시기 내에 성취되기 어려운 잠재적 난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전략 계획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습지 실행과 공조할 것을 표명하였다. 칠레는 동 계획안이 모든 생산분야를 포함할 필요를 강조하며 COP 개최시기를 매 4 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드러냈다.

인도, 케냐, 탄자니아는 습지 보전의 감시와 평가,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과학에 기반한 습지 개발 지침서 및 수자원 위험관리에 적용될 수화된 기준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스위스는 전략적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COP11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파테말라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역 토착 공동체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WWF는 IOP를 대신하여 IOP는 람사르협약 하에서 자원 및 우선순위 이슈들에 대한 파트너십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지지하였으며, 한편 한국 습지 기구는 람사르 위원회들에 NGO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였으나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재정보고와 예산

상임위원회 재정소그룹 Herb Raffaelesms 의장은 재정 및 예산문제(COP 10 Doc.17 and 18)와 2009-2012년도 예산안(COP 10 DR 2 Rev.1)을 발표했다. 결의안 초안의 부록에는 명목예산동결안, 실질예산동결안, 4%증액안, 11.75%증액안 등 총 4개의 선택안이 나와있는데, 이는 파트너십과 기금미련을 담당할 추가적인 사무국 인력 충원을 비롯하여 지역 이니셔티브의 역량 신장 등을 포함한다. Raffaele

의장은 4 개 예산 증액안 세부사항 지역 이니셔티브, 기술과학검토패널(STRP), 의사소통, 교육, 참여, 인식 증진 프로그램(CEPA), 파트너십 구축, 사무국 인력확충 등을 고려한 함축적 사항들을 개관했다. 또한 국가 연락기관(NFPs)에 대한 지원과 같이 랍사르 협약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밝혔다. 노르웨이는 당사국의 수 및 습지 사이트 등재수가 증가하고 협약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국 직원 확충 부족이 효과적인 협약이행에 있어서 주요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란, 파나마, 이라크는 4% 증액안을 지지하였는데, 특히 이란은 추가적인 지역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파나마는 지역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옹호했고 이라크는 이란의 지역 센터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회의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Batilda Burian**(탄자니아)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UNEP의 **Musonda Mumba**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이슈들과 기후 변화 충격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 과학자들을 동원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정예산위원의 **Herb Raffaele** 의장은 11.75%동결안은 승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며 당사국들이 기부 증대 의지를 표명하도록 독려했다.

- 아시아: 이 회의는 **Guo Shuang**(중국)이 의장을 맡아 예산안과 다른 결의안 초안에 대한 당사국들의 소견을 구하였다. 대표단들은 제안된 예산안과 이행지원의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4% 증액안을 지지한 반면 일본은 예산동결안에 찬성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사무국의 법적 지위와 지역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른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북미: 북미 지역 회의는 **John Bowley**(바하마)가 의장직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실질예산 증액안 또는 4%증액안에 호응한 반면 미국은 명목예산동결안을 선호했다. 또한 COP 개최주기에 대하여 현행 3년 회기 유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만일 4년 회기로 변경될 경우 지역 회의의 개최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유럽: 유럽 지역 회의는 **Gordana Beltram**(슬로바니아)의장의 진행으로 사무국의 법적 지위 변화가 가져오는 예산상의 합의와 지역 코디네이션에 사용 가능한 예산의 재조정이 지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COP 회의 개최 수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용절약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협약의 여세 감소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단들은 상임위원회의 3년 6개월 후 COP11 소집 제안에 찬성했다. 스위스와 러시아 연방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상품에 영향을 끼치도록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결의안 초안의 범위를 수소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까지 확장시킬 것을 촉구했다.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산지와 남극 습지에, 독일은 번식도와 같은 선형(線形) 유수(流水)구조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회의에서는 **Perina Sila**(사모아)가 의장직을 맡았다. 예산에 관해 일부 대표단은 11.75% 증액안이 승인되지 않을 시, 파트너십 직원 충원을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 예산 감축에 대하여 반대했다. 대표단들이

기후변화, 바이오연료, 자원추출산업, 향후 COP 의 시기와 빈도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컨택그룹 이 형성되어야 함에 공감하였고 또한 각 컨택그룹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각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호주는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하여 지역들의 일반적인 입장 표명이 가져오는 이점들을 지적하였다. COP 개최시기와 빈도에 대하여 대표단들은 4년으로 회기를 연장할 경우 예산 증가와 여세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오세아니아 지역 이니셔티브, STRP, NFP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컨택그룹

예산 재정예산위원회는 **Herb Raffaele**(미국)를 의장으로 하여 30 일 밤에 소집되었다. 각 지역 회의 대표들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사항을 보고했다. 많은 대표들은 일부 기탁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 4%증액안에 대한 합의에 동의했다. 각 지역회의는 이번 이슈에 대한 각 국 입장의 추후 토론을 위해 내일 아침(금)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사무국의 법적지위: 오늘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컨택그룹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의 법적·조직적 관련성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사무국은 현 상태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령 국가간 조직으로서의 인식의 결여, 혹은 한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많은 대표단들이 COP10에서는 최후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시인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안건들의 재정적·법적 관련성과 당사국에 끼칠 영향력을 매 회기마다 진척시키기 위해 테스크포스 구축을 논의했다.

방론(放論)

지역 대표와 컨택그룹이 사무국의 법적지위 혹은 COP 개최주기 변경(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등의 다른 의제가 지닌 재정적 함의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루어진 예산관련 논의는 거의 모든 이슈들을 포함했다. 유럽은 예산동결안이 그들의 중요 지역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 점을 인정해야 했으며 아프리카는 11.75% 증액안 채택이 불가능할 것임을 수용하였다. 일각에서는 저녁에 열린 아프리카 지역 회의에서 4% 증액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예산안 결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일부 기탁국의 예산동결안 선호를 주시하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예산과 행정적 이슈들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다시 다루면서 어느 대표단은 ‘오늘 이루어진 협상이 무엇인지 간에, 결국 사무국의 법적 지위와 COP 개최주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This issue of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 <enb@iisd.org> is written and edited by Imran Habib Ahmad, Asheline Appleton, Ph.D., Stefan Jungcurt, Ph.D., Leila Mead, and Renata Rubian. The Digital Editor is Dan Birchall. The Editor is Pamela S. Chasek, Ph.D. <pam@iisd.org> and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is Langston James “Kimo” Goree VI <kimo@iisd.org>. The Sustaining Donors of the *Bulletin* are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CIDA), the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uropean Commission (DG-ENV), and the Italia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General Support for the *Bulletin* during 2008 is provid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wed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WAN International, Swiss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the Fin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he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 IGES),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rough the Global Industrial and Social Progress Research Institute - GISPRI)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unding for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Fren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rancophonie (IOF). Funding for the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Spanish has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pai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Bullet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IISD or other donors. Excerpts from the *Bulletin* may be used in non-commercial publications with appropriate academic citation. For information on the *Bulletin*, including requests to provide reporting services, contact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at <kimo@iisd.org>, +1-646-536-7556 or 300 East 56th St., 11A, New York, NY 10022, USA. The ENB Team at Ramsar COP10 can be contacted by e-mail at <stefan@iisd.org>.

